

# 웃등 보살 불등 거사 <56>

구성 : 김흥민



### 실룩거리는 왕의 눈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사람이 왕의 환심을 사려고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왕의 환심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말했다. "네가 왕의 환심을 사려고든 왕의 형상을 본 받아라." 그는 왕궁에 가서 왕의 눈이 실룩거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 똑같이 눈을 실룩거렸다. 왕이 물었다. "너는 무슨 눈병에 걸렸는가. 혹은 바람을 맞았는가. 왜 눈을 실룩거리는가?" 그는 대답했다. "저는 눈을 앓지도 않고 또 바람도 맞지 않았습니만 왕의 환심을 사려고 그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곧 크게 화를 내어 사람을 시켜 갖가지로 벌을 준 뒤에 나라에서 쫓아내 버렸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여 법을 듣거나 혹은 글귀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문구가 있으면 곧 그것을 비방하거나 헐뜯는다. 때문에 부처님 법안에서도 선(善)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 갈래 나쁜 길(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이니 저 왕의 실룩거리는 눈을 본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 옛 판화의 세계

### 계승을 외워 감옥에서 나온다 송계출옥(誦偈出獄)



고려판화박물관 소장 <산해본원(山海本元)> 송계출옥(誦偈出獄) 판화(半部) 27.2×18.0cm

당나라 때 대자은사에 주석하고 있던 화엄장 법사가 승복사에서 진 율사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삽화가 전개되고 있다. 과신량이란 사람이 저승사자를 따라 지옥에 들어가 평등왕에게 죄를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려 가게 됐는데 한 스님이 나타나 가르쳐준 <화엄경> 계승을 외우고 나서 지옥을 벗어나게 됐다는 내용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과신량이 스스로 말하기를 '얼마 전에 홀연히 갑자기 죽었다가 근간에 다시 살았던 가피를 입었습니다. 당시 세 사람의 저승사자가 나를 찾아와 명부의 평등왕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죄와 복을 심판하고 마땅히 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해 사자에게 부탁하고 끌고 가서 지옥에 보내게 했는데 거의 지옥에 들어가게 됐을 무렵에 한 스님을 만났더니 그 스님이 지옥의 고통에서 구해내고자 한다. 그대에게 가르쳐줄 것이니 한 수의 계승을 외워라!' 고 하기에 그 스님에게 절을 하고 '구호하시겠다면 빨리 계승의 글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 스님이 계승을 외웠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와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若人欲知三世一切佛) 마땅히 법계의 자성을 관할지니라. 모든 것은 오직 이 마음이 지었느니라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곧 뜻을 세워 마음속으로 이 계승을 몇 차례 두루 외우고 나니 과신량과 같이 죄를 받는 수천만 사람이 모두 이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됐는데, 이것은 모두가 과신량이 설한 말이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계승은 능히 지옥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니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니

'이 계승을 외워라'고 하기에 그 스님에게 절을 하고 '구호하시겠다면 빨리 계승의 글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 스님이 계승을 외웠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와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若人欲知三世一切佛) 마땅히 법계의 자성을 관할지니라. 모든 것은 오직 이 마음이 지었느니라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곧 뜻을 세워 마음속으로 이 계승을 몇 차례 두루 외우고 나니 과신량과 같이 죄를 받는 수천만 사람이 모두 이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됐는데, 이것은 모두가 과신량이 설한 말이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계승은 능히 지옥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니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니



### 시가 있는 도량

#### ▪ 단풍나무

말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 단풍나무처럼  
말하지 않고 있을 키워으면 좋겠다  
키운 잎  
노랗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떨어져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봄을 맞고 여름을 견뎌내고  
가을에 익었으면 좋겠다  
겨울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저 단풍나무처럼 뿌리를 키워면 좋겠다

-윤종영/시집 <구두>

##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이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의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 (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보남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